‘희망 2009’ 이것만은 이뤄내자

④ 여수 박람회·영산강 정비

“대규모 국비 투입 국책사업 지역발전 획기적 전기 돼야”

정부도 강한 의지…지자체 등 역량 모아야

전남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3년여 앞으로 다가온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지난달 29일 첫 삽을 뜬 ‘영산강프로젝트’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획기적인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수박람회와 영산강프로젝트는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국가사업인데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각각 동부권과 서부권의 경제활성화를 확실히 견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영산강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범위가 나주시를 비롯한 영산강 유역 8개 시·군에 걸쳐있으며, 이명박 정부가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지역민들 사이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2012년 5월부터 3개월간 여수신항 일대 174만㎡에서 진행되는 여수박람회의 경우 지난해 12월1일 세계박람회기구(BIE)로부터 ‘박람회준비계획’을 승인받음으로써 박람회 개최를 위한 국내외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최근엔 BIE회원국을 상대로 본격적인 참가 유치활동에 착수한 상태다.

시설비 1조7천310억 원, 운영비 3천79억 원 등 총 2조38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전주~광양간,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 및 순천~여수 열차 복선화 사업, 그리고 여수~고흥 연륙 연도교 건설사업 등 박람회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 추진중이어서 그동안 지역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했던 ‘취약한 SOC’문제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영산강 뱃길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고 지역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영산강 프로젝트’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폭제로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정부가 최근 발표한 ‘녹색뉴딜’사업에 영산강 등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포함됨으로써, 영산강 프로젝트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순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전남도는 영산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사업비로 국토해양부 예산 345억 원, 환경부 예산 1천428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38억 원 등 국비 1천811억 원을 이미 확보했다.

전남도와 함께 영산강 유역 8개 시·군도 영산강 관련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영산강프로젝트를 지역발전의 호기로 삼기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1단계로 오는 2010년까지 몽탄~영산포 22㎞ 구간의 하도준설과 천변저류지 4곳 조성, 영산강변도로 조성, 2급수 이상 깨끗한 영산강 조성, 고대 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2단계로는 2012년까지 영산강 횡단 교량 개수, 영산강변 전원마을 조성, 장성호 등 4대호 숭상 등의 사업을 펼친 뒤 3단계로 2015년까지 영산강 주변 관광지 개발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영산강 프로젝트는 환경친화적으로 뱃길을 복원하고, 수질개선 및 치수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지역 명품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토균형발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

/홍행기기자 redplane@

전쟁에 상처 받는 아이들 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남성이 가자시티에서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머리를 다쳐 피 흘리는 아들을 안고 울부짖으며 시파병원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다.〈왼쪽〉 같은 날 가자지구와 가까운 크파르 아자 키부츠에서 이스라엘 여성이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피하기 위해 두 아들을 팔로 감싸 안은 채 바닥에 엎드려 있다. /연합뉴스

‘가자 사태’ 휴전이나 확전이나

이스라엘 13일째 공격 계속…헤즈볼라는 지원 태세

이집트 “72시간내 휴전 목표” 카이로에서 중재 착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끝낼 휴전 협상이 8일(현지시각)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중재국인 이집트의 아흐메드 아불 가이트 외무장관은 향후 사흘 내에 휴전을 성사시킨다는 목표 아래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이날 이집트가 제안한 ‘가자 전쟁’의 휴전안을 논의할 실무협상단을 카이로로 파견했으며,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하마스의 망명지도부에서 보낸 협상 대표단도 카이로에 와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이날 중 휴전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이집트가 양측 간의 세부적인 휴전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휴전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휴전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13일째 이어갔다. 이스라엘은 전날 밤부터 공군기를 동원, 이집트와 국경을 맞댄 가자지구 남부 라파 지역을 폭격하고 있다.

한편 레바논 남부지역에서는 하마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로켓 공격이 발생하자 이스라엘군이 즉각 대응포격에 나서는 등 가자 사태의 확산 우려가 일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북부 나하리야에 레바논 쪽에서 날아온 3~5발의 ‘카츄샤’ 로켓 파편에 주민 여러 명이 부상한 데 맞서 로켓 발사가 이뤄진 레바논 남부에 박격포탄 5발을 발사했다고 이스라엘군 대변인이 전했다.

레바논 남부에는 2년여 전에 이스라엘과 34일간 전쟁을 치른 시아파 강경 무장세력인 헤즈볼라가 포진하고 있으나 이들 로켓을 발사한 주체가 헤즈볼라인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란과 시리아 측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 뛰어들 경우 이번 전쟁은 제 5차 중동전으로 확산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연합뉴스

美 의회 ‘북핵 대응’ 입법 추진

힐러리 등 민주당 중진 20명 ‘2009 美 국력회복법’ 제안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가 곧 출범하는 버락 오바마 차기 미국 정부의 주요과제로 넘겨진 가운데 제111회 미 의회가 북한과 이란의 안보위협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해리 리드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무장관에 내정된 힐러리 클린턴, 외교위원장 존 케리 의원 등 민주당 중진 20명이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테러위협 및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 제정을 주장한 가칭 ‘2009 미국 국력회복법’ 입법을 제안했다.

민주당 중진들은 특히 핵개발 및 WMD 생산·확산을 도모하는 북한과 이란이 미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 북한과 이란의 안보적 도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법안은 입법취지 설명을 통해 “미국의 국가안보를 회복하고 증진하기 위한 법률들을 의회는 입안하고 대통령은 승인·서명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면서 향후 법안이 담아야 할 내용을 소개했다. /연합뉴스